

구례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꼴 '치매 환자'

보건의료원 조사 환자 비율 9.2%...전국 평균 7.24% 크게 웃돌아 2년 연속 증가 속 여성 비중 77%...마을 방문조사 확대도 한 요인

구례군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구례지역 60세 이상 인구 100명 가운데 치매 환자 비율은 9.2%(명)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치매 유병률 7.24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구례지역 치매 환자는 2021년 1076명, 2022년 1099명, 올해 1119명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올해 치매 환자 1119명 가운데 여자는 863명으로, 전체의 77% 비중을 차지했다.

치매 환자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평야 지대로 꼽히는 용방면이 13.7% 가장 많았고 광의면

(11.6%)의 뒤를 이었다.

치매 환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구례군은 분석했다.

또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들이 각 마을 방문을 확대하면서 치매 환자 발굴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치매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모든 마을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를 찾아내고 있어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례군 한 주민(66)은 "장수 고장으로 알려진 구

례 치매 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치매 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보는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지난 2008년부터 '구례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마다 벌이며 치매 주요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흡연과 음주 비율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은 치매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에 대한 종합적·다각적인 보건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구례군은 보건복지부 2023-2026년 중장기 지역 보건요계계획 수립 성과대회에서 '평생 건강을 다 함께 누리는 구례'라는 사업안을 출품해 장려상을 받았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은 고령화에 따른 지역민 치매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에 대한 종합적·다각적인 보건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 전경. (구례군 제공)

여수 '금오도~안도' 교통약자에 호출택시 갑니다

전남 첫 도서지역 운행 월~금 장애인·임산부 등 이용

여수시가 남면에서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섬 지역 '교통약자 호출택시'를 운행한다.

남면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난 20일부터 1대 운행하고 있다.

금오도~안도 구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운행한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차에 탈 수 있도록 탑승구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장애인과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됐거나 남면 지역 방문자 중 이용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현재 여수에는 총 25대의 교통약자 콜택시가 운행 중이다.



여수시 남면에서 전남 최초로 운행하는 섬 지역 '교통약자 호출택시'를 한 지역민이 탑승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새 얼굴 변신 '고흥 용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86억 투입 방파제 설치·카페 신축 등

고흥 용동항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변신했다.

고흥군은 지난 21일 도덕면 용동항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전남도의원, 군의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동항 어촌뉴딜 300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용동항은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86억원이 투입됐다. 방파제 및 방사제 설치와 한마을센터 및 노을 카페 신축, 어구 보관창고 등 각종 공사가 6월까지 진행됐다.

용동항 준공으로 고흥군은 어항 기능 복원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어

촌뉴딜 300 사업의 추진 목표에 부합하는 어촌·어항 통합 재생의 선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고흥군은 어촌뉴딜 300 후속 사업으로 취도 금사·염포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2개소를 정상 추진 중이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어촌의 잠재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용동항에 새롭게 마련된 기반 시설과 빛깔길, 야영장, 쉼쉼리조트 등 주변 연계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져 어민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GS칼텍스 임직원, 여수 초·중에 책상 기부

걸음기부 등 1억원 모금...학교 10곳에 1100개 전달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는 임직원 걸음기부와 사내 전자문서 지우기 캠페인 등으로 1억원을 모금해 초·중학교에 친환경 책상 1100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최근 탄소 저감 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걷기 등 자발적으로 모금한 재원을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보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지난 20일 남면 개도 화

정초등학교에서 여수교육지원청 서금열 교육장, 화정초 김병무 교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국 사무처장, GS칼텍스김기웅 대외협력부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로 제작한 접이식 각도 조절 책상 전달식'을 가졌다.

이 책상은 GS칼텍스의 MR(Mechanical Recycling, 물리적 재활용) 소재로 제작됐다.

국가표준규격에서 요구하는 안정성, 강도 및 내구성 기준에 부합하며, 어린이용 가구 유해 물질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MR은 페플라스틱을 선별, 분쇄, 세척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로 GS칼텍스는 페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한 복합수지를 생산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의 탄소저감 활동 기부금 총 1억 600만원을 활용해 화정초와 안일초, 신평초, 쌍봉초, 여수중 등 지역사회 초중학교 10곳에 1100개의 친환경 소재 기능성 책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 주민 정신건강 살피는 '동네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병원 5곳 추가 협약...우울증 등 치료

곡성군이 지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제때 발견하기 위해 협력 동네의원을 5곳 늘렸다.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차 의료기관 5곳과 '동네의원 마음이음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협약을 맺은 동네의원은 정석진의원, 류내과의원, 옥곡현대의원, 우리들내과의원, 곡성정형외과의원이다.

이로써 곡성군 협력 병원은 모두 10곳이 됐다.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늦지 않게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학과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지난해부터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로부터 노인 우울증상 2건을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문기관에 상담을 연계했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곡성지역 19세 이상 성인 우울감 경험률(표준화율)은 9.3%로, 전남 평균 5.8%를 크게 웃돌고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빨리 식별하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